

1. 프로젝트 목적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받아 OJbooks의 첫 번째 소설 「빨간 사자」를 종이책으로 출판하려 합니다.

2. 소설책 「빨간 사자」 소개

※ 「빨간 사자」는 동화같은 색채를 띄고 있지만 소설입니다. 어린이도 볼 수 있지만 어른책입니다. 16p 정도의 일러스트가 포함된 180p 내외의 분량입니다.

쉬운 걸 추구하는 글작가와 그림을 쉽게 그리는 그림작가가 「빨간 사자」를 통해 우리 사는 세상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표지>



<줄거리>

숲 속 나라 한 구석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호랑이들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들은 한때 동물들의 존경을 받으며 숲 속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새끼호랑이는 동굴 밖을 나가 본적이 없습니다. 사실 어미호랑이 몰래 살짝 나갔다가 온 적은 있습니다. 그 후로 숲 속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진 새끼호랑이는 탈출(?)을 계획하게 됩니다.

동굴 탈출에 성공한 새끼호랑이는 숲 속 나라를 누비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러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어딘지 모르게 행복해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숲 속 나라에 사는데 왜들 행복해보이지 않는 거지?" 새끼호랑이는 지금 숲 속 나라를 다스리는 사자왕에게 동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결심합니다.

<작가의 말>

숲 속 나라에 비유하여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원한 답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쉽고 재미있게 문제를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는 문제의 원인을 한쪽으로만 몰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쌍방이 작용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직업의식이 중요하다 말하는 작가. 우리 사는 세상을 마주하고 문제를 의식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명의 직업인으로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빨간 사자」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쉽고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끼호랑이는 아홉 일째 일어나 등을 뒹굴 바라보고 있다.
표정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배한 새알이 굵직한 모양이다.
아이호랑이는 벌레 일이나 찾아있는 새끼호랑이에겐 다가가
가 뽀뽀 후트제 아홉일사를 한다.

"우리 아가 잘 잤나?" 아이호랑이는 새끼호랑이의 머리
를 가볍게 밀어 애의 일을 맞춘다.

"네, 엄마,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새끼호랑이는
아이호랑이의 뽀뽀새알과 귀찮아서 머리를 비비며 입을
꼭으로 세운다.

"그럼, 잘 잤지. 우리 아가 아홉일사 뽀뽀 보고 있는 거
나?"

"뽀뽀 했어요. 뽀뽀 뽀의 새알은 어쩐지 굵글해요."

"뽀뽀 했?" 아이호랑이는 새끼호랑이의 발에 뽀뽀새알의
흔적을 감추지 못한다.

"네, 아주 어릴수록 뽀뽀하면 뽀뽀 나카 본적이 없었어요."

"어거, 뽀뽀 뽀는 아주 위험한 곳이란대. 뽀뽀하는 나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가진 않래."



'뽀뽀새알'

새끼호랑이 3



노래는,
뽀뽀 새알이 뽀뽀
하고 입을 뽀뽀 새알이
조금씩 더러워져서
노래는 뽀뽀 새알이
노래는 뽀뽀 새알이
노래는 뽀뽀 새알이
노래는 뽀뽀 새알이

나. 하하하——" 공은 이레가 오주 흘러가 을 뽀뽀다 더
거대해 보였다.

"예술가요? 예술가는 무슨 일을 해요?" 새끼호랑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음—— 예술가란 말이지,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만
물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로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하고 웃게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그렇게
원즈로써 다른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일종의 예술이
라고 봐도 되겠구나. 하하하하——" 공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자랑스럽다.

"그런데 넌 숲 속 나라의 슈퍼스타인 나를 모르고 있었지
가나?" 그렇다면 이마도 뽀뽀 다른 곳에서 놀러 왔나 보구
나? 만 그런 나를 보들 리가 없을 텐데——" 공은 지극히
자하는 다르게 하얀 뽀뽀는 표정으로 새끼호랑이를 노리
본다.

"아니예요. 전 숲 속 나라 구석에 있는 동물에게 왔어요.
사자왕을 만나려고요."

"뽀? 사, 사자왕?" 공이 당치에 어울리지 않게 뽀뽀해

예술가 공 41

3. OJbooks란?

글 쓰는 기획자와 그림 그리는 건축가가 만나 OJbooks를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재능으로 서로를 보완하여 멋진 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4. 펀딩이 필요한 이유

- 출판을 위한 인쇄, 제본 등의 제작비 충원을 합니다.
 -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

5. 후원금 사용 계획

- 인쇄, 제본 등의 실질적인 제작비로 사용됩니다.
 - 도움주신 분들께 드릴 선물 제작비로 사용됩니다.
-

6. 후원해주신 분들께 약속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출판은 중요합니다. 출판시장이 살아 내려면 우선 동네서점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동네서점이 어려운 것은 분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OJbooks는 도움주신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출판으로 어우러진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을 해법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후원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 펀딩으로 제작될 「빨간 사자」 종이책 (예상 판매가 13,000원)
- OJ가 후원자분들을 위해 개발한 OJ책갈피 (캐릭터는 랜덤으로 발송)
- OJ가 후원자분들을 위해 개발한 카드달력세트 (2016년3월~2017년2월)
- 「빨간 사자」 일러스트 이미지 파일 모음 (USB)
- 「빨간 사자」 전자책 (eBook)